

# 한국 유권자의 정당일체감과 투표행태: 정당 편향 유권자(partisan leaners)의 특성과 투표선택을 중심으로\*

장 승 진 | 국민대학교

본 연구는 18대 대선 직후에 실시된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정당일체감을 측정하는 두 단계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에서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밝혔지만 두 번째 질문에서는 특정한 정당을 선호한다고 대답한 응답자들, 즉 정당 편향 유권자(partisan leaners)의 특성과 행태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분석 결과 이들은 두 질문 모두에서 특정한 정당을 지지 혹은 선호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순수 무당파(pure independent)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질문에서 이미 특정한 정당을 지지한다고 대답한 정당 지지자(partisan supporters)와도 명확하게 구별되는 독특한 당파적 집단으로 드러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당 편향 유권자들의 특징은 특정한 정당에 대한 분명한 선호와 함께 주요 정당에 대한 양가적인(ambivalent) 감정을 동시에 내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정당 편향 유권자와 정당 지지자들은 표면적으로는 지지 혹은 선호하는 정당의 후보에게 압도적으로 투표했다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정당에 대한 태도가 투표선택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발견이 한국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을 이해하는 데 있어 제공하는 이론적 함의에 대해서 논의한다.

**주제어:** 제18대 대선, 정당일체감, 투표선택, 정당 편향 유권자, 정당태도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3A2042859).

## I. 서론

유권자가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가, 즉 정당일체감(*party identification*)은 그들의 정치적 선택과 행태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 중 하나로 간주되어 왔다. 1950년대 미국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미시간 학파(*Michigan school*)의 연구 이래로 정당일체감의 개념적 정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지속되고 있으나, 정당일체감이 가지는 이론적·경험적 영향력 자체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다양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어 왔다(*Johnston 2006*). 한국의 경우에도 유권자의 의식과 행태를 분석하는 거의 모든 연구에서 지지하는 정당이 있는지 혹은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지는 주요 독립변수 혹은 통제변수로서 항상 빠지지 않고 포함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여부가 초래하는 경험적 결과에 대한 기술(*description*)을 넘어서서 과연 한국 유권자들이 나타내는 정당일체감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투표선택으로 이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한국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에 대한 부족한 이해는 특히 두 가지 측면에서 두드러진다. 우선 첫 번째로 한국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을 어떻게 측정하고 분석할 것인가에 대해 상당한 혼란이 존재한다. 전통적으로 정당일체감은 첫 번째로 현재 존재하는 주요 정당들 중에서 평소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본 이후, 두 번째로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대답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혹시 조금이라도 더 선호하는 정당이 있는지 만일 있다면 어떤 정당인지를 질문하는 방식으로 측정된다. 그러나 많은 경우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과 상관없이 첫 번째 질문에서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대답한 응답자들을 통틀어 넓은 의미의 무당파로 간주하곤 한다.<sup>1)</sup> 그러나 이렇게 정의된 무당파는 정치적으로 소외된 비정치층(*apolitical*)에서부터 다른 어떤 집단보다도 많은 정치적 자원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정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와 선택을 하는 유권자들까지를 포함하는 매우 이질적인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박원호 2013b; 박원호·송정민 2012; 이현출 2001*). 반면에 또 다른 많은 경우에는 첫 번째 질문에서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

1) 물론 이러한 분류가 연구자의 의도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사용하고 있는 설문조사 자료에서 두 번째 질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다고 밝혔지만 두 번째 질문에서는 특정한 정당을 선호한다고 대답한 응답자들, 즉 “정당 편향 유권자”(partisan leaners)를 첫 번째 질문에서 이미 특정한 정당을 지지한다고 대답한 “정당 지지자”(party supporters)와 별다른 구분 없이 함께 묶어서 해당 정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분류하기도 한다.<sup>2)</sup>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정당 편향 유권자들이 정당 지지자들과 동일한 특성을 가진 집단이며 다만 두 집단 사이의 차이는 지지의 강도에 국한된다는 암묵적인 그러나 경험적으로 검증된 바 없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

한국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에 대한 부족한 이해와 관련한 두 번째 문제점은 정당일체감을 측정하는 문항에 대한 선택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실제 선거에서의 투표선택에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는 사실이다. 한국 유권자의 투표선택을 설명하는 대부분의 분석에서는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가가 주로 가변인(dummy variable)의 형태로 통계모형에 포함되며, 해당 회귀계수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정당일체감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곤 한다. 그러나 이러한 도식적인 분석으로는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상당수가 실제로 해당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사실만을 보여줄 뿐 어떠한 심리적 기제로 인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본 논문은 두 가지 차원에서 한국 유권자의 정당일체감 및 투표선택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시도한다. 우선 첫 번째로 한국 유권자들이 나타내는 정당일체감의 세 유형 - 정당 지지자와 정당 편향 유권자, 그리고 순수 무당파<sup>3)</sup> - 간의 선택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봄으로써 과연 정당 편향 유권자들이 해당 정당에 대한 지지의 강도를 제외하고는 정당 지지자들과 동일한 특성을 가진 집단인지, 혹은 순수 무당파와 함께 묶여 넓은 의미의 무당파로 볼 수 있는 집단인지, 혹은 정당 지지자와 순수 무당파 둘 다와 구별되는 또 다른 모습의 유권자 집단인지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 한국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이 어떻게 실제 선거에서의 투표선택으로 이어지는지 정당에 대한 심리적 태도, 즉 정당태도(partisan

- 
- 2) 언론 보도를 통해 흔히 접할 수 있는 정당 지지도 관련 여론조사들이 이런 경우라고 할 수 있다.
  - 3) 본 논문에서는 정당일체감을 측정하는 두 질문 모두에서 특정한 정당에 대한 지지 혹은 선호를 밝히지 않은 유권자를 순수 무당파(pure independents)로 지칭함으로써 앞서 언급했듯이 첫 번째 질문에서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대답한 응답자를 넓은 의미의 무당파로 간주하는 것과 구별하도록 한다.

attitudes)와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지지하는 정당의 유무를 묻는 전통적인 방식은 범주들 사이의 상호배타성을 전제한다는 의미에서 소속감(partisan affiliation)으로서의 정당일체감을 측정할 뿐 한국 유권자들이 정당과 맺고 있는 연계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아래에서 보다 자세하게 논의하듯이 소속감으로서의 정당일체감에 더해 정당태도를 함께 고려하는 것은 정당 편향 유권자의 특성을 이해하는 한편 이들이 실제 선거에서 어떻게 투표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흥미로운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경험적 분석을 위해 본 논문은 2012년 제18대 대선 직후에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와 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사용한다.<sup>4)</sup> 제18대 대선은 자유선진당의 흡수통합과 통합진보당의 분당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의 정당정치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사이의 실질적인 양당체제로 재편된 상황에서 치러졌다는 점에서 여타의 선거와 비교하여 한국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에 대한 분석을 용이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특히 박근혜와 문재인 두 후보를 제외한 다른 모든 후보들의 득표율 합계가 1%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유력한 제3후보 없이 양자대결로 치러진 선거였기 때문에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혹은 편향 여부가 해당 정당의 후보에 대한 선택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를 직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제18대 대선의 특성을 활용하여 본 논문에서는 어떠한 요인이 한국 유권자들 특정 정당에 대해 느끼는 소속감에 영향을 끼치며, 이러한 소속감은 다시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실제 선거에서의 투표선택에 이어지는지 분석한다.

## II. 한국 유권자의 정당일체감과 투표선택

### 1. 정당일체감에 대한 전통적 설명과 한계

정당일체감을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과 행태를 설명하기 위한 핵심적인 변수로서 제시한 미시간 학파에 따르면 정당일체감은 유권자가 특정 정당에 대해 안정적으로 가

4) 이 조사(한국정치연구소 2013)는 제18대 대선 이후 2012년 12월 31일부터 2013년 1월 16일에 걸쳐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대면면접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지고 있는 심리적인 애착심(enduring psychological attachment to a political party)으로 정의된다(Campbell et al. 1960). 이와 같이 정의된 정당일체감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합리적 계산과는 거리가 먼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의 일부로서, 스스로를 특정한 정당 혹은 정당의 지지자 집단(partisan group)과 정서적(affective)으로 동일시하는 심리를 의미한다(Campbell et al. 1960; Green et al. 2002; Miller and Shanks 1996). 따라서 정당일체감은 유권자가 본격적으로 정치에 눈을 뜨기 훨씬 이전부터 부모 및 자신이 속한 사회집단으로부터 전수받으며, 이러한 초기 사회화의 영향력은 성인이 된 이후 접하는 정치적 경험이 쌓이고 독자적인 정책 선호를 획득한 이후에도 여전히 유지된다(Niemi and Jennings 1991).

이렇게 개념화된 미시간 학파의 정당일체감은 두 단계에 걸친 설문을 통해 경험적으로 측정된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선거연구(American National Election Studies)에서는 먼저 “일반적으로 스스로를 민주당 지지자(Democrat), 공화당 지지자(Republican), 무당파(Independent) 중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다. 그리고 민주당/공화당 지지자에게는 정당일체감의 강도를 묻는 한편, 무당파 혹은 기타 다른 대담을 선택한 응답자들에게는 “그렇다면 민주당과 공화당 중 어느 정당에 보다 가깝게 느끼는지” 질문하여 정당 편향 유권자<sup>5)</sup>와 순수 무당파를 구분한다. 결과적으로 미국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은 민주당 지지자와 공화당 지지자가 무당파를 중심으로 양 극단에 위치하는 7점 척도의 일차원적(unidimensional) 공간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이 공간에서 민주당이나 공화당에 대한 일체감은 상호배타적인 것으로서 어느 한 정당에 대한 일체감은 곧 다른 정당에 대한 반대를 의미한다.

정당일체감을 이와 같이 개념화·조작화하는 것은 몇 가지 측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Greene 2000; Petrocik 1974; Weisberg 1980). 특히 문제가 된 것은 과연 정당 편향 유권자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이다. 만일 정당일체감을 사회적 정체성으로 이해하는 미시간 학파의 전통을 고수한다면 정당 편향 유권자와 순수 무당파의 구분과 상관없이 이들은 모두 무당파라는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 집단으로 간주되어야 한다(Miller 1991). 그러나 많은 연구들은 무당파에 상당히 이질적인 속성을 가진 유권자들이 혼합되어 있으며, 특히 정당 편향 유권자의 경우 특정 정당의 지지자와 비교했

5) 원래 미국 유권자의 정당일체감과 관련하여서는 이들을 편향 무당파(leaning independents)라고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논의의 일관성을 위해 정당 편향 유권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을 때 정치적 선택이나 행태에 있어서 그리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Dennis 1988, 1992; Keith et al. 1992). 즉 스스로를 무당파로 부르면서도 구체적인 정치적 선택과 행태에 있어서는 민주당이나 공화당 지지자보다 오히려 더 당파적인 집단(closet partisans)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정당 편향 유권자의 특성 혹은 보다 일반적으로 정당일체감의 측정에 존재하는 비이행성(intransitivity)의 문제(Petrocik 1974)는 정당일체감을 일차원적인 척도가 아니라 각 정당에 대한 태도, 그리고 무당파에 대한 태도까지 독립적인 축을 이루는 이차원적인, 혹은 그 이상의 다차원적인 공간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Alvarez 1990; Greene 1999; 2000; Weisberg 1980). 즉 특정한 정당에 대한 지지가 반드시 다른 정당에 대한 반대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정당일체감이 없는 무당파 유권자라고 해서 반드시 특정한 정당에 대한 선호를 가지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양당제가 일찍이 정착하여 오랜 기간 동안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온 미국과는 달리 다당제의 전통이 강한 사회에서는 정당일체감의 다차원성 문제가 불가피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유럽의 경우 유권자들이 비슷한 이념적 지향을 가진 복수의 정당에 동시에 일체감을 느끼는 경우나 혹은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에 대한 긍정적인 일체감만큼이나 반대하는 정당에 대한 부정적인 일체감(negative partisanship)이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발견된다(Gary 2007; Maggiotto and Pierson 1977; Richardson 1991).

## 2. 정당일체감의 한국적 적용

한국의 경우 정당들 사이의 빈번한 이합집산과 당명변경으로 인해 유권자들이 특정한 정당에 대해 안정적인 애착심을 발전시키고 이를 후속 세대에게 전수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당일체감 개념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 정당정치의 단기적인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정당일체감과 유사한 당파적 소속감이 한국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나타날 조건은 충분히 존재한다. 우선 구체적인 정당의 명칭 및 구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이후 여야의 주요 정당들은 이전의 정당들로부터의 연속성 상에서 서로 간의 정책적·이념적 차별성을 유지하면서 유권자에게 의미 있는 선택지를 제공해왔다(이지호 2009). 또한 한국의 정당이 기반하고 있는 핵심적인 균열은 단순히 몇몇 정치지도자의 선거 전략으로만 환원할 수 없는 역사적·구조적 기원을 가지

며(강원택 2011), 특히 1990년 3당 합당 이후로는 주요 정당의 정치적 지지층이나 이념적 특성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다(강원택 2012).

실제로 기성 정당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 무당파층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는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민주화 이후 시간이 지나고 유권자들이 정치적 경험을 축적하면서 특정한 정당에 대한 소속감을 획득하는 비율이 조금씩 늘어왔다(박원호·송정민 2012; 허석재 2014). 물론 이와 같은 당파적 소속감의 존재가 한국 유권자들 사이에서 정당일체감이 미국에서와 같이 “움직이지 않는 추동자”(unmoved mover)로서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짧은 민주주의의 역사를 고려하면 아직까지 한국 유권자들 사이에서 정당에 대한 태도가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의 일부로 수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매 선거마다 관찰되는 정당지지의 단기적 유동성은 한국 유권자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정당일체감이 얼마나 안정적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정당일체감 개념을 한국 유권자들에게 적용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한계 중의 하나는 한국 유권자들이 정당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정당일체감을 측정하기 위해 “지지하는” 혹은 “가깝게 느끼는” 정당이 있는지 만일 있다면 어느 정당인지 묻는 문항을 사용하며, 이러한 방식의 설문은 불가피하게 유권자가 정당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지적(cognitive) 측면의 태도를 강조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정작 한국 유권자가 보이는 당파적 소속감은 합리적 계산보다는 해당 정당에 대한 정서적(affective) 태도에 기반하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있다. 비록 2000년대 이후 정당 간 이념적 차이가 새로운 정치균열로 대두되기는 했지만, 한국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가 대표하는 이념적 속성이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를 둘러싼 계급 정치적 속성을 보이기보다는 반공 이데올로기의 수용을 둘러싼 세대 간 상이한 사회화 경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강원택 2011). 실제로 주요 정당의 이념적·정책적 입장에 대한 인식은 정작 유권자의 투표 선택에 예상보다 미미한 영향만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난다(장승진 2013b; 2013c). 유권자가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가에 정당조직이나 정강·정책이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박원호 2013a; 한정훈 2012), 한국 유권자들이 정당에 대해 가지는 태도는 각 정당이 자신의 정치적 선호와 이익을 얼마나 충실하게 대변하는가가 아니라 각 정당 및 주요 후보에 대해 얼마나 정서적 호감 또는 반감을 가지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장승진 2013a).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한국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정당에 대한 소속감과 더불어 정당에 대한 심리적 태도, 즉 정당태도(partisan attitudes)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Greene 1999; 2002; Roscoe and Christiansen 2010; Rosema 2006; Weisberg and Greene 2003). 심리적 태도란 특정한 대상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감정을 의미하며, 정당태도는 흔히 각 정당에 대한 호감도(feeling thermometer)를 통해 측정될 수 있다. 정당태도는 해당 대상에 대한 인지적·정서적 평가를 포괄한다는 점에서 소위 정당일체감에 대한 수정주의(revisionist) 입장과도 이론적 친화성을 가지며(Fiorina 1981), 외부의 자극과 새로운 정보에 의해 단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같이 정당지지가 유동적인 경우에 분석적 유용성이 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정당태도에 대한 고려는 앞서 제기한 정당일체감의 다차원적 이론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정당일체감을 특정한 정당에 대한 소속감의 표현으로만 이해한다면 이는 범주 간의 상호배타성을 전제로 하게 된다. 반면에 정당태도는 이러한 상호배타성을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대상에 대한 호감이 반드시 다른 대상에 대한 반감을 의미하지 않으며 따라서 복수의 정당에 동시에 호감을 느끼거나 동시에 거부감을 느끼는 상충적(ambivalent) 태도를 보일 수 있다(유성진 2009; 정한울 2013).

소속감으로서의 정당일체감에 더해 정당태도를 함께 고려하는 것은 정당 편향 유권자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흥미로운 가설을 제시한다. 일반적으로 특정한 집단에 대한 강한 정체성은 해당 집단에 대한 편애(in-group favoritism)와 다른 집단에 대한 폄하(out-group derogation)를 수반한다(Tajfel 1978; Tajfel and Turner 1986). 즉 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소속한 집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동시에 다른 집단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정당 편향 유권자들이 특정한 정당에 대한 명시적인 지지를 꺼리는 하나의 이유는 정당의 정책이나 후보에 대한 선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당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다른 정당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사이의 간극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Greene 2002). 다시 말해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 혹은 정당 일반 - 에 대한 호감도 자체가 그리 높지 않거나 혹은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호감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당에 대한 호감도와와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은 유권자일수록 정당 지지자보다는 정당 편향 유권자를 선택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유권자의 투표선택과 관련해서도 정당태도에 대한 고려는 흥미로운 가설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정당일체감에 대한 다차원적인 이론화에 따르면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지지하지 않는 정당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별개의 차원을 이루며, 따라서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각기 독립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소속 정당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후보자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는 것과는 독립적으로 경쟁 정당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또한 후보자를 지지하는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알려진 바 있다(황아란 2008). 한결음 더 나아가서 본 논문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긍정적 혹은 부정적 정당태도의 영향력이 유권자가 드러내는 소속감으로서의 정당일체감에 따라 비대칭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정당 지지자에 비해 순수 무당파 유권자들 사이에서 정당태도의 영향력이 보다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정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정당일체감에 부합하는 정당태도 - 즉 지지 정당에 대한 긍정적 태도나 상대 정당에 대한 부정적 태도 - 보다는 정당일체감과 상충하는 정당태도 - 즉 지지 정당에 대한 부정적 태도나 상대 정당에 대한 긍정적 태도 - 가 투표선택에 보다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점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예상에 비추어본다면 정당태도의 영향력이 정당 편향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 즉 정당 지지자와 유사한 모습을 보일지 아니면 순수 무당파와 유사한 모습을 보일지는 이들의 정당일체감이 투표선택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 III. 한국 유권자의 정당일체감: 기술적 분석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자료에서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은 두 단계에 걸쳐서 측정되었다.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 평소에 지지하는 정당이 있는지, 만일 지지하는 정당이 있다면 주요 정당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보았다. 이 때 지지하는 정당을 선택한 유권자들은 해당 정당의 지지자로 분류되었다. 만일 첫 번째 단계에서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대답하거나 혹은 주요 정당 중 지지하는 정당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두 번째 단계에서 지지하는 정당이 없더라도 주요 정당 중 조금이라도 더 선호하는 정당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두 번째 단계에서 선호하는 정당을 선택한 유권자들은 해당 정당의 편향 유권자로, 그리고 두 질문 모두에서 특정한 정당에 대한 지지 혹은 선호를 밝히지 않은 응답자들은 순수 무당파로 분류되었다. <표 1>에서는 제18대 대선 당시 정

〈표 1〉 18대 대선 당시 정당일체감의 분포

	빈도수 (%)
새누리당 지지자	339 (28,8)
민주통합당 지지자	190 (16,1)
새누리당 편향 유권자	138 (11,7)
민주통합당 편향 유권자	152 (12,9)
순수 무당파	370 (30,4)
계	1,177 (100)

당일체감의 각 범주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sup>6)</sup>

전체 응답자의 약 45%가 첫 번째 단계에서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을 지지한다고 대답하여 정당 지지자로 분류되었다. 약 25%의 응답자들은 비록 평소 지지하는 정당은 없지만 그나마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을 조금이라도 더 선호한다고 밝혀서 정당 편향 유권자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30%에 달하는 응답자가 한국의 주요 정당 중 지지하거나 선호하는 정당이 없다고 대답함으로써 무당파로 분류되었다.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은 정당 지지자 중에서는 새누리당 지지자가 민주통합당 지지자보다 훨씬 많은 반면에 정당 편향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민주통합당을 선호한다고 밝힌 응답자의 숫자가 새누리당을 선호하는 응답자보다 오히려 다소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과연 어떤 특성을 가진 유권자들이 정당일체감의 각 범주를 선택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표 2〉에서는 2000년대 이후 한국 선거정치의 핵심적인 균열로 등장한 세대 및 이념성향에 따라 응답자의 정당일체감을 나누어 제시하였다. 이념성향의 경우 원래 자료에서는 0(매우 진보)로부터 5(중도)를 거쳐 10(매우 보수)에 이르는 11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나, 논의의 편의를 위해 0부터 4를 진보성향으로, 6부터 10을 보수성향으로 재코딩하여 사용하였다.

〈표 2〉에 따르면 세대 및 이념성향에 따른 정치적 균열은 한국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에도 마찬가지로 반영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구체적인 모습은 예상과 달리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선 세대와 관련하여 눈에 띄는 현상은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순수 무당파의 비율이 급격하게 감소한다는 점이다. 20대의 절반 이상이 한국의 주

6) 극소수의 응답자들(1.9%)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외의 다른 정당을 지지 혹은 선호한다고 대답했으며, 이들은 이하의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표 2〉 세대 및 이념성향에 따른 정당일체감의 분포(%)

	정당 지지자		(1)+(2)	정당 편향 유권자		(3)+(4)	순수 무당파
	새누리당(1)	민주통합당(2)		새누리당(3)	민주통합당(4)		
19~29세	8.49	11.79	20.3	3.77	20.75	24.5	55.19
30~39세	20.00	15.83	35.8	10.00	17.08	27.1	37.08
40~49세	24.32	18.53	42.9	11.97	14.67	26.6	30.50
50~59세	39.64	16.22	55.9	18.47	8.11	26.6	17.57
60세 이상	50.00	17.62	67.6	13.93	4.51	18.4	13.93
진보성향	5.84	28.10	33.9	8.03	23.36	31.4	34.67
중도성향	20.81	14.77	35.6	10.96	13.20	24.2	40.27
보수성향	53.21	7.49	60.7	17.38	4.81	22.2	17.11

요 정당 중 어느 정당도 지지 혹은 선호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반면에 50대 이상에서는 이 비율이 10%대로 낮아진다. 이와 대조적으로 정당 지지자의 경우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새누리당 혹은 민주통합당을 지지한다고 대답한 유권자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20대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20%에 지나지 않던 것이 60대 이상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전체 유권자 중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의 편향 유권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세대에 따라 별다른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결국 젊은 세대가 정치적 소외감과 무관심으로 인해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지 않고 무당파를 선택한다는 일반적인 평가는 정당 지지자와 순수 무당파 사이에서만 적용될 수 있으며, 정당 편향 유권자를 정당 지지자나 순수 무당파 중 어느 한 집단과 묶어서 함께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념성향과 관련해서도 〈표 2〉는 흥미로운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중도성향 유권자들 사이에서 순수 무당파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스스로의 이념성향이 중도라고 밝힌 유권자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중 특정한 정당에 대한 지지 혹은 선호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즉 특정한 정당을 지지 혹은 선호하지 않는 순수 무당파가 반드시 이념적 중도성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류재성 2012). 또 한 가지 〈표 2〉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진보성향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정당 지지자와 정당 편향 유권자의 비율이 비슷한 수준이었던데 반해 보수성향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정당 지지자의 비율이 정당 편향 유권자의 거의 3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떠한 정당

도 지지 혹은 선호하지 않는다고 대답하는 비율 또한 보수성향 유권자들에 비해 진보성향 유권자들 사이에서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물론 정당 지지자와 정당 편향 유권자들 내부에서는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혹은 보수적인 이념성향을 가질수록 민주통합당에 비해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 혹은 선호가 늘어나는 등 2000년대 이후 한국의 선거에서 익숙하게 목격되는 패턴이 발견된다. 그러나 <표 2>의 결과는 어느 정당을 지지 혹은 선호하는가뿐만 아니라 해당 정당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 소속감을 느끼는가 또한 유권자의 특성에 따라 변화하며, 이러한 변화는 - 위에서 논의했듯이 - 정당 지지자들과 정당 편향 유권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정당 편향 유권자들을 정당 지지자들과 지지의 강도에 있어서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본질적으로 유사한 집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실을 강하게 암시한다.

그렇다면 특정한 정당에 대한 지지 혹은 선호, 즉 소속감으로서의 정당일체감은 각 정당에 대한 심리적 태도와 어떻게 연관되는가? 만일 소속감으로서의 정당일체감이 각 정당에 대한 호감도와 경험적으로 일치한다면 굳이 정당일체감과 별개로 정당태도를 고려하는 것이 분석적인 가치를 가지기 어려울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표 3>에서는 정당일체감의 유형에 따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 대한 호감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주고 있다. 각 정당에 대한 호감도는 0부터 10까지의 11점 척도로 나타냈으며,<sup>7)</sup> 값이 커질수록 해당 정당에 대해 보다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연하게도 특정한 정당을 지지 혹은 선호하는 유권자는 해당 정당에 대해 상대 정당보다 높은 호감도를 느끼고 있다. 그러나 <표 3>에서 더욱 흥미로운 것은 정당 지지자와 정당 편향 유권자 사이에 각 정당에 대한 호감도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새누리당 지지자와 새누리당 편향 유권자 사이에 그리고 민주통합당 지지자와 민주통합당 편향 유권자 사이에 각 정당에 대한 호감도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정했을 때 오직 새누리당 지지자와 새누리당 편향 유권자 사이에서만 새누리당에 대한 호감도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특정한 정당의 지지자 및 편향 유권자 사이에 상대 정당에 대한 호감도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으며, 민주통합당의 지지자와 편향 유권자의 경우 심지어 민주통합당

7) 원래는 0부터 100까지의 척도였으나 분석의 편의를 위해 0부터 10까지의 11점 척도로 재코딩하였다.

〈표 3〉 정당일체감에 따른 각 정당에 대한 정서적 호감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호감도 평균 (표준편차)	<i>p</i> -value*	호감도 평균 (표준편차)	<i>p</i> -value*
새누리당 지지자	7.21 (1.53)	< 0.001	4.47 (1.51)	0.28
새누리당 편향 유권자	6.31 (1.62)		4.64 (1.55)	
민주통합당 지지자	4.03 (1.77)	0.43	6.27 (1.62)	0.11
민주통합당 편향 유권자	3.88 (1.86)		5.99 (1.66)	
순수 무당파	4.54 (1.96)		4.78 (1.72)	
전체 응답자	5.30 (2.26)		5.07 (1.76)	

\*두 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에 대한 t-test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에 대한 호감도에 있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 것이다. 결국 〈표 3〉의 결과는 소속감으로서의 정당일체감이 단순히 지지 정당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나 상대 정당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며, 특히 정당 지지자와 정당 편향 유권자 사이의 차이는 각 정당에 대한 심리적 태도의 강약으로 환원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IV. 정당일체감의 결정요인

보다 구체적으로 정당 지지자와 정당 편향 유권자, 그리고 무당파의 차이에 어떠한 유권자 특성이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하에서는 한국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포함한 일련의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종속변수는 정당일체감의 유형으로서 순수 무당파 유권자, 정당 편향 유권자, 그리고 정당 지지자의 세 범주로 코딩하였으며, 정당일체감의 유형 사이에 특정한 서열을 선형적으로 가정하지 않기 위해 이를 명목(nominal) 변수로 취급하여 다항 로짓(multinomial logit) 모형을 추정하였다.

독립변수로서는 우선 진보-보수 이념과 관련한 두 변수를 포함하였다. 첫 번째 이념 변수로는 이념성향의 강도로서 응답자의 이념성향을 나타내는 진보-보수의 11점 척도

에서 중도를 0으로 그리고 매우 진보 혹은 매우 보수를 5로 재코딩한 6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즉 값이 커질수록 보다 선명한 진보 혹은 보수의 이념성향을 드러낸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에 따라 특정한 정당을 지지 혹은 선호할 유인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두 번째 이념 변수로는 마찬가지로의 11점 척도에서 응답자가 인식하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이념적 위치 사이의 거리를 사용하였다. 두 정당이 이념적으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고 인식할수록 두 정당 간의 차별성이 부각되며 결과적으로 유권자들로 하여금 특정한 정당을 지지 혹은 선호할 유인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진보-보수의 이념과 더불어 정당태도, 즉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각각에 대한 호감도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다만 분석의 초점이 -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은 채로 - 정당일체감의 유형에 있으므로 두 정당에 대한 정치적 태도를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두 값의 평균과 차이를 구해서 분석에 포함하였다. 즉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주요 정당에 대해 평균적으로 보다 호감을 느낄수록 그리고 두 정당 사이에서 어느 한 정당을 다른 정당보다 상대적으로 더 좋아할수록 특정한 정당에 대해 지지 혹은 선호를 표시할 확률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진보-보수 이념과 정당태도 외에도 응답자의 정치적 성향과 관련된 일련의 변수들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먼저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수록 특정한 정당을 지지 혹은 선호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다만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자료에 정치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도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설문문이 없기 때문에, 평소 선거나 정치적 사안에 대해 주위 사람들과 얼마나 자주 이야기하는가를 5점 척도로 측정하여 사용하였다. 두 번째로 유권자가 느끼는 정치적 효능감(political efficacy)을 일반 시민들의 선호에 대한 정치체제의 반응성(responsiveness)에 대한 믿음을 뜻하는 외적 효능감과 정치에 관여하는 데 필요한 스스로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믿음을 뜻하는 내적 효능감으로 나누어 포함하였다.<sup>8)</sup> 정치적 효능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특정한 정당에 대해 지

8) 외적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나 같은 사람들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어떤 영향도 주기 어렵다”와 “정부는 나 같은 사람들의 의견에 관심이 없다”의 두 진술을 사용하였고, 내적 효능감은 “나는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정치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다”와 “대부분의 한국 사람은 정치나 행정에 대해 나보다 잘 알고 있다”의 두 진술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진술에 대해 응답자는 찬성 혹은 반대를 5점 척도를 사용하여 대답하였고, 외적 효능감과

〈표 4〉 정당일체감의 결정요인

	Coefficients (Standard Errors)	
	정당 지지자 (vs. 정당 편향 유권자)	무당파 (vs. 정당 편향 유권자)
응답자 이념성향의 강도	-0.009 (0.065)	-0.141 (0.077)
정당간 이념 거리	-0.005 (0.036)	-0.042 (0.040)
정당 호감도 평균	0.180* (0.050)	-0.493* (0.070)
정당 호감도 차이	0.193* (0.067)	-0.246* (0.070)
정치적 관심도	0.011 (0.094)	0.061 (0.104)
외적 효능감	0.127 (0.099)	0.121 (0.108)
내적 효능감	0.098 (0.158)	0.104 (0.181)
민주주의 만족도	0.129* (0.049)	-0.024 (0.055)
일반화된 신뢰	-0.238* (0.120)	0.051 (0.135)
20대	-0.574 (0.301)	0.718* (0.287)
30대	-0.124 (0.251)	0.212 (0.265)
50대	0.123 (0.247)	-0.458 (0.304)
60세 이상	0.335 (0.309)	-0.506 (0.392)
고등학교 졸업	-0.295 (0.293)	-0.503 (0.370)
대학교 재학 이상	-0.510 (0.333)	-0.467 (0.396)
월평균 가구소득	-0.001 (0.064)	0.007 (0.071)
취업 여부 (취업=1)	-0.322 (0.211)	-0.804* (0.231)
자가주택 여부 (자가=1)	0.174 (0.213)	-0.155 (0.224)
성별 (여성=1)	-0.396* (0.182)	-0.400* (0.197)
거주 지역 dummies	Yes	Yes
Constant	-1.155 (0.848)	3.021* (0.924)
Pseudo-R <sup>2</sup>	0.1936	
N	1,069	

주: 서울을 기준으로 한 응답자의 거주 지역을 나타내는 가변인들이 포함되었으나 여기에서는 생략되었다. \* $p < 0.05$ .

내적 효능감은 각기 두 진술에 대한 대답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지 혹은 선호를 표시할 확률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에 대한 일반화된 신뢰(generalized trust)<sup>9)</sup>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sup>11)</sup>를 포함하였다.

이외에도 응답자의 세대, 교육 및 소득 수준, 취업 여부, 자가주택 소유 여부, 성별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 또한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거주 지역을 통제하기 위해 서울을 기준으로 15개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가변인이 포함되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당 지지자와 정당 편향 유권자, 그리고 무당파 간 차이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주요 정당에 대한 심리적 태도로 드러났다. 평균적으로 양대 정당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가 낮은가에 따라 정당 편향 유권자에 비해 순수 무당파나 정당 지지자에 속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감소 혹은 증가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사이에서 어느 한 정당을 다른 정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좋아하는 경우 정당 편향 유권자보다는 정당 지지자에 속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지면 관계상 보고하지는 않았지만, 만일 주요 정당에 대한 호감도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진보-보수의 이념과 관련한 변수 또한 한국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의 유형에 차이를 가져왔다. 즉 유권자 본인이 중도보다는 강한 진보나 보수의 특정한 이념성향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사이의 이념적 차별성을 보다 분명하게 인식할수록 무당파보다는 정당 편향 유권자나 정당 지지자에 속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이념성향의 효과는 양대 정당에 대한 호감도를 고려하면 곧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이념 및 정당태도를 제외하고는 다른 정치적 성향이 정당일체감의 유형에 끼치는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예측과는 달리 정치적 관심도나 정치적 효능감은 정당 지지자와 정당 편향 유권자, 그리고 무당파 간 차이에 전혀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반면에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만족하는 사람일수록 특정한 정당을 지지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 유

9) 일반화된 신뢰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항상 조심해야 한다”의 1부터 “항상 신뢰할 수 있다”의 4에 이르는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10) 자료의 한계로 인해 정치 일반 혹은 정당을 비롯한 구체적인 정치제도에 대한 신뢰는 분석에 포함할 수 없었다.

11)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는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잘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거의 실현되지 않고 있다”를 뜻하는 0부터 “매우 잘 실현되고 있다”를 뜻하는 10에 이르는 11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권자들 사이에서 정당 지지자와 정당 편향 유권자를 가르는 핵심적인 차이 중의 하나는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가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정당 편향 유권자와 순수 무당파 사이에서는 민주주의 만족도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의 책임을 정당에게 묻는 유권자들이 정당일체감을 측정하는 첫 번째 단계에서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대답하는 것이며, 이는 반드시 정치적 무관심이나 소외감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 가지 <표 4>에서 흥미로운 점은 정당 편향 유권자에 비해 정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오히려 일반화된 신뢰가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즉 타인에 대한 신뢰가 높은 사람일수록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기보다는 정당 편향 유권자로 남아 있을 확률이 증가한다는 의미로서 다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정치제도에 대한 신뢰는 해당 정치제도가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현실적인 경험과 인식을 반영하며 따라서 일반화된 신뢰를 비롯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반드시 정치적 신뢰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Newton 1999; Newton and Norris 2000; Uslaner 2002), <표 4>의 결과를 정치적 신뢰의 영향력으로 확대해서 해석할 수는 없다. 오히려 한 가지 유력한 가능성은 사회적 자본이 높은 사람일수록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의 정당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높은 일반화된 신뢰가 정치 참여를 매개로 오히려 정치적 불신을 가중시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표현하기를 거부하도록 이끄는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장수찬 2002; Kim 2005). 물론 이러한 해석에 대해서는 정치 일반 혹은 구체적인 정치제도에 대한 신뢰를 함께 분석에 포함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 V. 정당일체감과 제18대 대선의 투표선택

그렇다면 정당 지지자와 정당 편향 유권자, 그리고 무당파는 실제 투표선택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특히 단순히 누구에게 투표했는가 의 문제를 넘어서서 동일한 후보를 지지하는 경우라도 과연 어떠한 심리적 과정을 거쳐 해당 선택에 이르게 되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제18대 대선에서의 투표선택을 살펴보기 위한

〈표 5〉 정당일체감에 따른 제18대 대선의 투표선택(프로빗 모형)

	Coefficients(Standard Errors)	
새누리당 지지	1.649* (0,297)	3.237* (1,311)
새누리당 편향	1.399* (0,269)	1.349 (0,856)
민주통합당 지지	-1.240* (0,249)	-0.893 (1,108)
민주통합당 편향	-0.723* (0,231)	-0.547 (0,797)
새누리당 호감도	0.438* (0,059)	0.610* (0,091)
민주통합당 호감도	-0.336* (0,063)	-0.468* (0,098)
새누리당 지지 × 새누리당 호감도		-0.029 (0,247)
새누리당 지지 × 민주통합당 호감도		-0.296 (0,334)
새누리당 편향 × 새누리당 호감도		-0.035 (0,234)
새누리당 편향 × 민주통합당 호감도		0.035 (0,239)
민주통합당 지지 × 새누리당 호감도		-0.183 (0,192)
민주통합당 지지 × 민주통합당 호감도		0.111 (0,204)
민주통합당 편향 × 새누리당 호감도		-0.564* (0,139)
민주통합당 편향 × 민주통합당 호감도		0.419* (0,155)
진보-보수 이념성향	0.099* (0,049)	0.084 (0,051)
이명박 국정운영 지지	0.015 (0,040)	0.014 (0,042)
국가경제 평가	-0.015 (0,095)	-0.014 (0,098)
가계살림 평가	-0.206 (0,108)	-0.244* (0,110)
20대	0.135 (0,228)	0.045 (0,235)
30대	0.097 (0,211)	0.127 (0,216)
50대	-0.224 (0,224)	-0.248 (0,232)
60세 이상	0.366 (0,323)	0.295 (0,338)
고등학교 졸업	0.552 (0,302)	0.589 (0,322)
대학교 재학 이상	0.134 (0,310)	0.210 (0,330)
월평균 가구소득	0.103 (0,058)	0.088 (0,060)
취업 여부(취업=1)	0.246 (0,183)	0.207 (0,189)
자가주택 여부(자가=1)	0.111 (0,178)	0.151 (0,182)
성별(여성=1)	0.204 (0,152)	0.122 (0,158)
거주 지역 dummies	Yes	Yes
Constant	-1.899* (0,597)	-1.846* (0,648)
Pseudo-R <sup>2</sup>	0.6769	0.6920
N	928	9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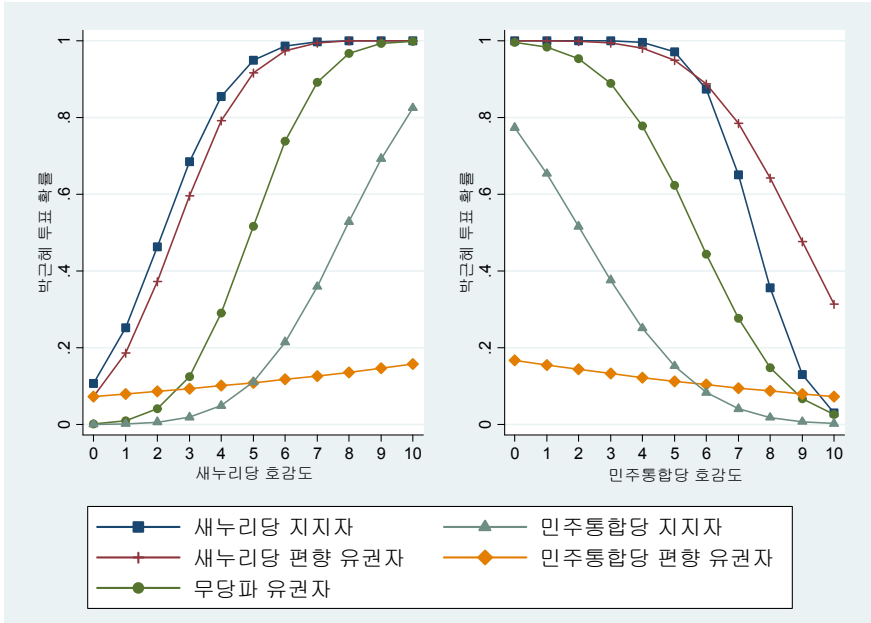
주: 서울을 기준으로 한 응답자의 거주 지역을 나타내는 가변인들이 포함되었으나 여기에서는 생략되었다. \* $p < 0.05$ .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종속변수는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를 1로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한 후보를 0으로 코딩한 이항변수이다. 독립변수로는 정당일체감과 각 정당에 대한 심리적 태도 외에도 한국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우선 응답자의 진보-보수 이념성향이 포함되었으며,<sup>12)</sup> 회고적(retrospective) 평가의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도와 함께 지난 5년간의 국가경제 및 가계살림의 변화에 대한 인식이 포함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도는 0부터 10까지의 11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국가경제 및 가계살림의 변화에 대한 인식은 값이 커질수록 긍정적인 인식을 뜻하는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그리고 앞서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응답자의 세대, 교육 및 소득 수준, 취업 여부, 자가주택 소유 여부, 성별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이 통제되었다.

먼저 <표 5>의 첫 번째 모델을 통해 소속감으로서의 정당일체감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 대한 심리적 태도가 모두 제18대 대선의 투표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소속감으로서의 정당일체감이 투표선택에 끼친 영향력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다른 모든 변수들을 중위값(median)에 고정했을 때 정당일체감의 각 범주에 속하는 유권자가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할 확률을 계산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자와 편향 유권자가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할 확률은 각각 89%와 84%로서 두 집단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은 반면에, 민주통합당에 대한 지지자와 편향 유권자 사이에서는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할 확률이 각각 12%와 33%로서 21%p에 달하는 상당한 격차가 나타났다.

이어서 두 번째 모델에서는 새누리당 및 민주통합당에 대한 정당태도의 영향력이 정당일체감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무당파를 기준으로 한 정당일체감의 각 유형을 나타내는 가변인들과 두 정당에 대한 호감도 사이의 상호작용(interaction) 효과를 살펴보았다. 이 경우 상호작용항에 포함되지 않은 새누리당 및 민주통합당에 대한 호감도는 무당파 유권자 사이에서 나타나는 정서적 태도의 영향력을 의미한다. 그리고 각 상호작용항의 계수는 해당 정당일체감의 유형에서 정서적 태도의 영향력이 무당파 유권자 사이에서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준다.

12) 응답자의 이념성향 대신에 응답자가 인식하는 두 정당과의 이념 거리를 분석에 포함했을 때에도 결과에는 차이가 없었다.



〈그림 1〉 정당일체감의 유형에 따른 정당태도의 영향력

결과에 따르면 순수 무당파의 경우 새누리당에 대한 호감도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민주통합당에 대한 호감도가 감소할수록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대부분의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정당 지지자 및 정당 편향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정당태도의 영향력이 순수 무당파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호작용항은 민주통합당 편향 유권자들 사이에서만 나타났다. 즉 민주통합당 편향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에 대한 호감도가 투표선택에 끼치는 영향력이 다른 유권자 집단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모습이 발견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당태도가 투표선택에 끼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림 1〉에서는 다른 모든 독립변수의 값을 중위값에 고정시켰을 때, 정당일체감의 각 범주별로 각 정당에 대한 호감도가 어떻게 투표선택으로 이어지는지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먼저 비교의 기준이 되는 순수 무당파 사이에서는 새누리당 및 민주통합당에 대한 호감도에 따라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할 확률이 거의 선형(linear)에 가까운 형태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정당 지지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정당일체감

에 부합하는 정당태도 - 즉 지지 정당에 대한 긍정적 태도나 상대 정당에 대한 부정적 태도 - 는 투표선택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는 반면에 정당일체감과 상충하는 정당태도 - 즉 지지 정당에 대한 부정적 태도나 상대 정당에 대한 긍정적 태도 - 가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할 확률에 상당한 차이를 가져왔다. 마지막으로 정당 편향 유권자의 경우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사이에서 눈에 띄는 차이가 발견되었다. 새누리당 편향 유권자의 경우에는 정당태도의 영향력이 정당 지지자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편향 유권자의 경우 새누리당 및 민주통합당에 대한 호감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투표선택에 있어 거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심지어 민주통합당 편향 유권자가 새누리당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의 호감을 가지거나 민주통합당에 대해 가장 낮은 호감을 보이는 비현실적인 상황에서조차도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할 확률은 여전히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소속감으로서의 정당일체감에 있어서는 민주통합당에 대한 지지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주통합당 편향 유권자야말로 제18대 대선에서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를 가장 일관되게 지지한 유권자 집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sup>13)</sup>

## VI. 요약 및 결론

물론 정당일체감이 투표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 자체는 전혀 새로운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본 논문의 분석은 한국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에 대해 단순히 특정한 정당을 지지 혹은 선호하면 해당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한다는 차원의 기술적인(descriptive) 차원의 의미를 넘어서는 중요한 이론적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소속감으로서의 정당일체감과는 독립적으로 각 정당에 대한 호감도 역시 투표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한 유권자가 어느 정당을 어떠한 형태로 지

13) 물론 본 논문이 탐색적인 성격이 강한 연구인만큼 민주통합당 편향 유권자들이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한 가지 가능한 추정은 민주통합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상당수가 스스로의 정당일체감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지지하는 정당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응답을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담감은 한국 정치에 있어서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이 처한 구조적인 취약성 혹은 그들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지 혹은 선호하는가는 그들이 각 정당에 대해 어떠한 심리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에 의해 일차적으로 영향받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러한 정당태도와외 상호작용을 거쳐 제18대 대선의 투표선택으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본 논문의 분석을 통해 드러난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한국 유권자들이 정당에 대해 가지는 태도는 특정한 정당에 대한 지지 여부라는 단순한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 다차원적인 현상이라는 점이다.

특히 정당 편향 유권자와 관련하여 본 논문의 분석은 한국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을 이해하기 위해 중요한 이론적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정당 편향 유권자는 순수 무당파와는 정당태도에 있어서 명확하게 구별되는 집단이며, 따라서 이들을 단순히 무당파의 일부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단순히 이들이 정당일체감을 측정하는 두 번째 단계의 질문에서 특정한 정당에 대한 선호를 밝혔다는 차원뿐만 아니라, 한국의 주요 정당에 대한 심리적 태도에 있어서도 정당 편향 유권자와 순수 무당파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동시에 정당태도는 정당 편향 유권자와 정당 지지자 사이에서도 분명한 차이를 가져오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정당 편향 유권자가 정당일체감을 측정하는 첫 번째 단계의 설문에서 특정한 정당에 대한 지지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핵심적인 이유는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 - 혹은 정당 일반 - 에 대한 호감도 자체가 그리 높지 않거나 혹은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호감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당에 대한 호감도와외 차이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정당 편향 유권자는 특정한 정당에 대한 분명한 선호와 함께 주요 정당에 대한 양가적인(ambivalent) 감정을 동시에 내보인다는 점에서 정당 지지자와 함께 묶이기 어려운 독특한 유권자 집단이라는 것이다.

정당 편향 유권자와 관련하여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선호가 실제 투표선택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이 정당 지지자와는 사뭇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두 집단 모두 제18대 대선에서 자신이 지지 혹은 선호하는 정당의 후보에게 압도적으로 투표하였다는 점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편향 유권자의 경우 새누리당 및 민주통합당에 대한 호감도와외 무관하게 문재인 후보에 대한 일방적인 지지가 일관되게 유지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정당일체감과 상충되는 정당태도에 의해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할 확률이 달라지는 민주통합당 지지자와 구별된다. 즉 민주통합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보다 민주통합당 편향 유권자들 사이에서 정당에 대한 소속감이 투표선택에 끼치는 영향력이 오히려 더 크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패턴은 민주통합당 편향 유권자들 사이에서만 발견될 뿐, 새누리

당 편향 유권자들은 새누리당 지지자들과 거의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새누리당 편향 유권자와 민주통합당 편향 유권자 사이에 이러한 차이점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에 의해 보다 자세하게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것은 한국 유권자들의 정당일체감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고안하는 데 있어서 보다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실적인 조사의 편의를 위해 정당일체감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평소 지지하는 정당이 있는지를 묻는 하나의 질문만을 사용한 설문조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을 비롯한 많은 연구들이 보여주었듯이 정당 편향 유권자와 순수 무당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함께 묶이기 어려운 이질적인 집단이라는 점에서, 첫 번째 질문에서 지지하는 정당을 밝히지 않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두 번째 단계의 추가 질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지지하는” 혹은 “가깝게 느끼는” 정당을 묻는 일반적인 관행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앞서서도 논의했듯이 정당일체감이라는 개념에는 유권자가 정당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서적 유대감이 존재한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해서 이러한 문구는 이념적 공간에서 각 정당의 정책 위치에 대한 인식을 보다 부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과연 정당일체감에 대한 애초의 개념화에서 강조하는 정서적 유대감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존재한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는가에 대한 이론적·경험적 차원의 지속적인 연구와 더불어 한국적 맥락에 부합하는 정당일체감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문항의 개발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투고일: 2015년 3월 25일

심사일: 2015년 5월 7일

게재확정일: 2015년 6월 1일

## 참고문헌

- 강원택, 2011. “한국에서 정치 균열 구조의 역사적 기원: 립셋-록칸 모델의 적용.” 『한국과 국제정치』 27권 3호, 99-129.
- \_\_\_\_\_. 2012. “3당 합당과 한국 정당 정치.” 『한국정당학회보』 11권 1호, 171-193.

- 류재성, 2012. “중도 및 무당파 유권자 특성: 무태도(non-attitudes)인가 부정적 태도(negativity)인가?” 『대한정치학회보』 20집 1호, 101-127.
- 박원호, 2013a. “정당일체감의 재구성.” 박찬욱·강원택 편, 『2012년 대통령선거 분석』, 51-74. 서울: 나눔.
- \_\_\_\_\_, 2013b. “무당파의 선택: 2012년의 양대 선거를 중심으로.” 이내영·서현진 편,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5: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12 총선과 대선』, 133-155. 서울: EAI.
- 박원호·송정민, 2012. “정당은 유권자에게 얼마나 유의미한가?: 한국의 무당파층과 국회의원 총선거.” 『한국정치연구』 21집 2호, 115-143.
- 유성진, 2009. “상층적 태도의 유권자: 민주주의의 적인가, 이상적 유권자인가?” 김민전·이내영 편, 『변화하는 한국유권자3: 패널조사를 통해 본 18대 국회의원 총선거』, 99-127. 서울: EAI.
- 이지호, 2009. “정당 위치와 유권자 정향: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을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 2권 1호, 123-149.
- 이현출, 2001. “무당파층의 투표행태: 16대 총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4집 4호, 137-160.
- 장수찬, 2002. “한국사회에 나타난 악순환의 사이클: 결사체 참여, 사회자본, 그리고 정부 신뢰.” 『한국정치학회보』 36집 1호, 87-112.
- 장승진, 2013a. “한국 유권자의 당파심(Partisanship): 정당지지와 정당투표의 이념적, 정서적 기초.” 박찬욱·강원택 편, 『2012년 국회의원선거 분석』, 175-203. 서울: 나눔.
- \_\_\_\_\_, 2013b. “제19대 총선의 투표 선택: 정권심판론, 이념 투표, 정서적 태도.” 『한국정치학회보』 46집 5호, 99-120.
- \_\_\_\_\_, 2013c. “민주통합당은 좌클릭 때문에 패배하였는가? 제18대 대선에서의 이념투표.” 『의정연구』 19권 2호, 73-98.
- 정한울, 2013. “정당 태도갈등이 투표행위 변동에 미치는 영향: 18대 총선 및 19대 총선 패널조사(KEPS) 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12권 1호, 243-277.
- 한국정치연구소, 2013. 『2012 대선 조사: 정치와 민주주의에 관한 의식 조사』,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http://ikps.or.kr/board03/view.asp?page=1&Key=1&refl=1>(검색일: 2015. 3. 1).
- 한정훈, 2012. “정당일체감 형성요인 분석: 정강, 정당지도자 및 정당활동가.” 『한국과 국제정치』 28권 3호, 93-128.
- 허석재, 2014. “한국에서 정당일체감의 변화: 세대교체인가, 생애주기인가.” 『한국정당학회보』 13권 1호, 65-93.
- 황아란, 2008. “제17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선택과 정당태도의 복합 지표 모형.” 『현대정치



- 연구』 13권 1호, 85-110.
- Alvarez, R. Michael. 1990. "The Puzzle of Party Identification: Dimensionality of an Important Concept." *American Politics Research* 18, No. 4, 476-491.
- Campbell, Angus, Philips E. Converse, Warren E. Miller, and Donald E. Stokes. 1960. *The American Voter*.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Dennis, Jack. 1988. "Political Independence in America, Part I: On Being an Independent Partisan Supporter."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8, No. 1, 77-109.
- \_\_\_\_\_. 1992. "Political Independence in America, III: In Search for Closet Partisans." *Political Behavior* 14, No. 3, 261-296.
- Fiorina, Morris P. 1981. *Retrospective Voting in American National Election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Gary, John. 2007. "Making 'Party Identification' More Versatile: Operationalising the Concept for the Multiparty Setting." *Electoral Studies* 26, No. 2, 346-358.
- Green, Donald P., Bradley Palmquist, and Eric Schickler. 2002. *Partisan Hearts and Minds: Political Parties and the Social Identities of Voter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Greene, Steven. 1999. "Understanding Party Identification: A Social Identity Approach." *Political Psychology* 20, No. 2, 393-403.
- \_\_\_\_\_. 2000. "The Psychological Sources of Partisan-Leaning Independence." *American Politics Quarterly* 28, No. 4, 511-537.
- \_\_\_\_\_. 2002. "The Social-Psychological Measurement of Partisanship." *Political Behavior* 24, No. 3, 171-197.
- Johnston, Richard. 2006. "Party Identification: Unmoved Mover or Sum of Preference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9, 329-351.
- Keith, Bruce E., David B. Magleby, Candice J. Nelson, Elizabeth A. Orr, Mark C. Westlye, and Raymond E. Wolfinger. 1992. *The Myth of the Independent Voter*.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Kim, Ji-Young. 2005. "'Bowling Together' isn't a Cure-All: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Political Trust in South Korea."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26, No. 2, 193-213.
- Maggiotto, Michael A., and James E. Pierson. 1977. "Partisan Identification and Electoral Choice: The Hostility Hypothesi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 21, No. 4, 745-767.
- Miller, Warren E. 1991. "Party Identification, Realignment, and Party Voting: Back to the Basic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5, No. 2, 557-568.
- Miller, Warren E. and J. Merrill Shanks. 1996. *The New American Vote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Newton, Kenneth. 1999. "Social and Political Trust in Established Democracies." In Pippa Norris, ed. *Critical Citizens: Global Support for Democratic Government*, 169-187.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Newton, Kenneth and Pippa Norris. 2000. "Confidence in Public Institutions: Faith, Culture, or Performance?" In Susan J. Pharr and Robert D. Putnam, eds. *Disaffected Democracies: What's Troubling the Trilateral Countries?*, 52-72.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Niemi, Richard G. and M. Kent Jennings. 1991. "Issues and Inheritance in the Formation of Party Identifica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5, No. 4, 970-988.
- Petrocik, John R. 1974. "An Analysis of Intrasitivities in the Index of Party Identification," *Political Methodology* 1, No. 3, 31-47.
- Richardson, Bradley M. 1991. "European Party Loyalties Revisited,"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5, No. 3, 751-775.
- Roscoe, Douglas D. and Neil D. Christiansen. 2010. "Exploring the Attitudinal Structure of Partisanship,"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40, No. 9, 2232-2266.
- Rosema, Martin. 2006. "Partisanship, Candidate Evaluations, and Prospective Voting." *Electoral Studies* 25, No. 3, 467-488.
- Tajfel, Henri. 1978. "Social Categorization, Social Identity, and Social Comparisons." In Henri Tajfel, ed. *Differentiation Between Social Groups*, 61-76. London: Academic Press.
- Tajfel, Henri and John C. Turner. 1986.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In Stephen Worchel and William G. Austin, eds.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7-24. Chicago: Nelson-Hall.
- Uslaner, Eric M. 2002. *The Moral Foundations of Trus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eisberg, Herbert F. 1980. "A Multidimensional Conceptualization of Party Identification," *Political Behavior* 2, No. 1, 33-60.

Weisberg, Herbert F. and Steven Greene. 2003. "The Political Psychology of Party Identification." In Michael B. MacKuen and George Rabinowitz, eds. *Electoral Democracy*, 83-124.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ABSTRACT

---

## Party Identification and Voting Behavior in the Korean Electorate: Characteristics and Vote Choices of Partisan Leaners

Seung-Jin Jang | Kookmin University

Using post-election survey of the 18<sup>th</sup> Presidential election,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and vote choices of “partisan leaners.” Partisan leaners here are those who, in the two-step questionnaire to measure one’s partisanship, first said that they do not support any political party but later expressed a preference for a particular party when probed in the second question. Results show that partisan leaners are a unique partisan group, different not only from pure independents but also from supporters of a particular party in the first question. More specifically, partisan leaners are characterized by a clear preference for a particular party which, at the same time, is also surrounded by ambivalent attitudes toward major parties. In addition, though on the surface being common in voting overwhelmingly for the candidate of the party that they prefer or support, partisan leaners and party supporters are different in the mechanism of how their partisan attitudes are linked to vote choices. Conclusion discusses theoretical implications that these findings have in understanding partisanship in the Korean electorate.

**Keywords:** 18<sup>th</sup> Presidential election, party identification, vote choice, partisan leaners, partisan attitudes